

제56회 한일경제인회의

THE 56th KOREA-JAPAN BUSINESS CONFERENCE

----- 2024. 5. 14~15 TOKYO, JAPAN -----

공동성명(안)

「미래로 이어지는 한일 파트너십」

‘제56회 한일경제인회의’를 2024년 5월 14일~15일 이틀에 걸쳐 일본국 도쿄도에서 개최하였다. 한국측에서는 김윤 단장 등 107명, 일본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단장 등 110명이 참가했다.

본 회의는 1969년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후,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개최해 왔다. 한동안 온라인 개최가 지속되어 도쿄에서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6년 만이다.

세계는 대립과 분단의 색채가 짙어지고 있다. 한편 한일 간에는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관계개선이 진전되었다. 난국에 직면하여 한일은 양국의 연계·협력을 통해 해쳐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양국 경제인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를 찾아, 미래로 이어지는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작년, 한일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결의를 다짐한 한일 공동선언으로부터 25년이 경과했으며, 내년에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다. 한일 경제인들은 이 기념비적인 시기에, 한일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었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 다음 -

1. 경제연계·협력의 확대

한일의 경제연계는 일체화된 서플라이 체인 구축 및 공동 자원개발, 반도체, 디스플레이, DX(디지털전환)·GX(녹색전환), 수소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과 함께, 스타트업 및 벤처 육성에서도 공동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했다.

한일 경제인은 상호연계·협력을 통해 공통과제의 해결·실현을 목표로 하고, 그 일환으로 한일·일한경제협회와 재단은 경제인 간의 네트워크가 보다 끈끈해지도록 노력한다.

2. 폭넓은 다양한 교류의 실현

양국 관계의 개선과 함께, 상호 왕래가 증가하면서 상대국의 음식이나 문화를 즐기는 모습이 늘어나고 있다. 한일의 연계를 미래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관심 및 호감도가 한층 더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일 경제인은 차세대, 문화, 지역 간 등의 각종 교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헌한다.

3. 양국 정부에 대한 기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이 선언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다음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한다.

2024년 5월 15일

한국측 대표단 단장 김 윤
일본측 대표단 단장 佐々木幹夫